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VANISHING FALLS

가제 : 배니싱 폭포의 살인 사건

저자 : Poppy Gee

출판사: William Morrow Paperbacks

발행일: 2020년 5월 5일

분량 : 273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저자 Poppy Gee 는 단순한 미스터리적인 요소보다는 내부를 파고들며 커져가는 집단 속 사람들의 심리적 면모를 더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 「Kirkus」

★ “저자가 발휘하는 장소에 대한 비범한 감각과 결점투성이의 인물들은 모두 너무나 매력적이다.”
– 「북리스트」

조엘은 태즈매니아 우림 속,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 이 조용한 배니싱 폭포 마을에 살고 있다. 그녀는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말이다. 이 지역은 지하의 작은 개울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물이 만든 거대한 폭포인 배니싱 폭포로 유명하다. 신기한점은 이 폭포에서 나온 물줄기들이 곧장 땅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쉐리아 릴리가 사라진 그 추운 겨울 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살펴본 곳 역시 바로 그 폭포였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그녀의 남편 잭에게로 향했다.

사건이 일어난 밤, 집에 도착한 잭은 저택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펫은 흠뻑 젖어 축축했고 난롯가에 앉아 평온하게 잠든 강아지처럼 딸들 역시 침실에서 굳히 자고 있었다. 열두 개의 복도, 일곱 개의 계단으로 이뤄진 이 대저택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다. 점점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고 잭은 어둠 속을 향해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잭은 서둘러 비상 계단을 거쳐 자신의 서재로 달려갔다. 잭은 그 서재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귀중한 유물과 진귀한 그림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모든 수집품들은 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집안 곳곳을 둘러봤지만 그 어떤 침입자의 흔적도 없었다. 외출용

가방, 코트,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등 아내의 소지품은 이리저리 거실에 놓여 있는데 이 커다란 저택에, 오직 아내만 집에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신고하는 일밖에 없었다. 집안을 살펴 본지 한 시간도 안되어 수사관들은 이 화려한 저택과 사과 창고, 견초 헛간, 마구간, 보트 하우스와 호수에서 강까지 이르는 목초지, 농장이 모두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경찰들은 얼마 전 두 부부가 경제적 문제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잭은 본능적으로 아내뿐 아니라 자신 역시도 큰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가 25 년 동안 공부했던 법 지식도 이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잭은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도 뭔가를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저자는 마치 인물들의 알리바이를 소개하듯 셸리아가 사라진 날을 기점으로 두고 그 전후 동안 벌어진 잭, 조엘, 클리프의 일상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이들의 단조로운 삶과 셸리아의 실종에는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잭 또한 의심이 가는 한 커플이 있었다. 사실 특별한 일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이 작은 마을에서도 다들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용의선상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마을의 또 다른 주민들은 클리프를 의심했다. 그는 농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지만 최근 들어 약물 중독 때문에 그의 인생도 이리 저리 흐트러지고 있는 중이었다.

한편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조엘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폭행 전과가 있는 자신의 남편이 경찰 수사에 미친 사람처럼 집착하자, 그런 남편을 점차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얼마 후,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존 글로버라는 화가의 19 세기 초 회화 작품 한 점이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작품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점점 고조에 이른다. 조엘은 셸리아의 범인을 찾는 사람이 곧 영웅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엘은 책에서 얻지 못한 지성을 직관으로 채워 넣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굳이 자신의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점차 그녀를 압박해오자 직접 진실을 파헤쳐간다. 그 과정에서 조엘은 셸리아를 찾아내려면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비밀을 세상에 밝혀야 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이 배니싱 폭포 근처에서 수영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몰랐다. 그들 중 아무도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물이 언제 자신들을 지하 개천으로 휩쓸어 갈지 모를 테니 말이다. 이 소설은 미지의 사건이 폭포수처럼 소용돌이치는 혼란 속에서도 인간의 선택이 가진 힘과, 사람들이 서로 감추고 속이는 가운데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저자 포피 기 (Poppy Gee)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남편, 아이들과 살고 있다. 또한 2013 년에 출간 된 『BAY OF FIRES』의 저자이기도 하다.

제목 : VALENCIA AND VALENTINE

가제 : 발렌시아와 발렌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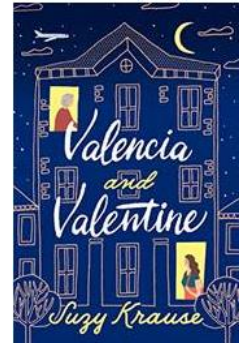
저자 : Suzy Kraus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6월 1일

분량 : 25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올해 5월 출간 이후 전자책, 종이책 합산 15만 부 이상 판매

★ “외로움, 상실감, 정신질환이라는 주제에 작가는 반짝이는 매력과 부드러운 유머를 녹여냈다” - 「북리스트」

★ “괴짜 같은 두 인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두 사람의 성취를 축하하게 될 것. 멋진 데뷔작이다” - 베스트셀러 『Sweet Forgiveness』의 작가 노리 벨슨 스킨먼

17년째 같은 회사에서 재미도 없고 별로 보람도 없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살아온 발렌시아에게 스스로 만든 그 틀을 직접 깰 수 있을지도 모를 기회가 찾아온다. 항상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을 찾기 위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온 홀로 사는 노인 발렌타인 역시 어느새 성처럼 공고해진 자신의 이야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나가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가 데뷔작으로 완성한 이 소설은 서로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서른다섯 살의 괴짜 발렌시아와 또 다른 유형의 괴짜인 여든 일곱의 노인 발렌타인의 이야기다.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절망과 비극의 기억을 안고 살다가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이상해져’ 두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웃음과 희망을 찾고 싶은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뜻밖의 반전과 함께 큰 감동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커다란 창고 건물에 자리한 웨스트파크 콜센터에는 똑같이 생긴 작은 부스가 가득하고 그 중 한 칸에 17년째 이곳에서 빗 수금원으로 일하는 발렌시아가 앉아 있다. 엄마는 아직도 딸이 하는 일이 텔레마케팅인줄 알지만 달콤한 말로 고객을 설득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일과 이미 그런 유혹에 과하게 넘어가서 돈을 써놓고 갚지 않는 사람들을 재촉하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발렌시아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카드 결제일이 넘어가도 입금이 안 된 사람들의 목록을 쪽 확인하고 전화해서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수십 명의 낮은 음성이 하루 종일 발렌시아의 앞뒤, 양 옆에서 흘러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직업이라고 느끼면서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작은 부스 안에 있을 때는 머릿속에 질주하는 꿈쩍한 상상들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강박 장애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발렌시아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 출근 전에 가스 차단기를 확실히 작동시켰는지 세 번, 네 번씩 확인을 안하면 하루 종일 건물 전체에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여럿이 목숨을 잃고 불길에 휩싸

인 건물 앞에서 망연자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재생됐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차단기를 확인 안해서 그래!’라고 비난하는 눈빛에 쪼그라든 모습은 좁고 혼잡한 도로에서 질주하는 차량에 치이는 또 다른 상상으로 이어진다. 길을 오가다 갑자기 과속하는 차량을 보면 그 차에 정면으로 부딪혀 온 몸이 갈갈이 찢기고 으스러지는 모습이 필요 이상으로 머릿속에 날날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운전 면허가 있으면서도 시내만 겨우, 어쩌다 한 번씩 차로 돌아다닐 뿐 고속도로에는 벌써 수 년째 갈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발렌시아의 이런 과도한 걱정과 불안은 오래 전,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심한 강박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발렌시아는 고등학교 시절, 첫 연애를 시작한 후 그 증상이 얼마나 삶을 고달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처절하게 경험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어깨라도 감싸려고 하면 징그러운 무언가가 달은 것처럼 몸을 피하고 마는 반사적인 반응과 하루 종일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고 싶은 정반대의 마음을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다. 결국 남자친구 돈은 그런 발렌시아를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고했다. 문제는 헤어진 지 이틀 만에 열린 졸업 파티에서 돈이 발렌시아가 평소 다른 못된 친구들과 함께 괜히 트집을 잡아서 놀리고 못살게 굴던 샬린이라는 존재감 없는 여학생에게 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본 것이다. 스스로를 향한 미움과 차였다는 수치심이 그 순간 활활 불타올랐고, 왜 꼬리치냐며 시비를 거는 발렌시아 무리를 피해 나가버린 샬린은 다음 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중해야 발렌시아는 샬린이 술에 절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런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죄책감을 씻을 수가 없었다.

한편, 이웃 주민들은 물론이고 잠시라도 대화를 나눌 상대만 생기면 붙들고 이야기를 늘어 놓는 발렌타인 여사는 이 넘치는 수다 욕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 다소 이상한 방식까지 동원한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매월 카드 이용료를 연체하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밀린 대금에 도둑놈들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이율이 붙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야 대금이 밀렸다고 전화가 걸려 오기 때문이다. 상담원이 누구든 발렌타인은 최소 30분씩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절친한 이웃 노인에게 또 열심히 설명했다. 냉장고에 붙여둔 일일 계획표 대로 시계처럼 정확하게 매 시간마다 정해진 일을 순서대로 하면서 사는 이 괴짜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안 청소를 해줄 가사 도우미를 쓰기로 결심한다. 물론 청소는 주 목적이 아니었다. 발렌타인이 고심해서 ‘선택한’ 애나는 지나온 긴 세월의 이야기들, 죽은 남편과의 소설 같은 러브스토리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던 젊은 날의 모험을 마음껏 들려줄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었다.

발렌시아가 일터에서 전화를 하다 만난 피터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극심한 비행 공포증을 극복해보고 싶다고 느끼면서 발렌시아와 발렌타인의 삶이 한 점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그저 숨 쉬고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것의 중요한 차이를 깨닫게 하는 멋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수지 크라우스(Suzy Krause)는 캐나다에서 글을 쓰면서 살고 있다. 본인이 직접 빛 수금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THE OTHER HALF OF AUGUSTA HOPE

가제 : 희망의 반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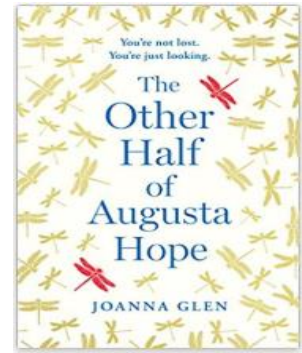
저자 : Joanna Glen

출판사: The Borough Press

발행일: 2019년 6월 13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가족 소설



★ 영국, 독일,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판권 계약

★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타인의 삶과 닿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 『The Cactus』의 작가 새라 헤이우드

★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모든 사람의 인생에 존재하는 절망과 희망이 현실적으로 가득 담겨 있다” – 배우 미란다 하트(Miranda Hart)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처럼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은 많지만, 쌍둥이로 태어난 줄리아와 오거스타만큼 다른 경우도 드물 것이다. 언니인 줄리아는 7월 마지막 날, 자정 조금 전에 태어나고 한참 뒤에 뒤따라 나온 오거스타는 자정을 넘겨, 8월의 첫 날이 열리자마자 태어났다. 줄리아는 모든 면에서 어떤 부모라도 꿈꿀 만한 사랑스러운 딸이었지만 오거스타는 모든 면에서 그 어떤 아이들과도 달랐다. 쇼핑몰이나 번잡한 시내와도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더 넓은 세상을 그리고 꿈꾸는 호기심 많은 소녀 오거스타는 여섯 살에 사전을 통째로 외울 만큼 명석했다. 너무 똑똑해서 탈인 아이, 아는 게 너무 많고 그 호기심은 늘 채워지지 않아서 입만 열면 ‘왜?’가 따라다니는 통해 학교 선생님까지 가르치려 들다가 민망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비상한 두뇌에 비해 사회성이 영 발달하지 못하는 골치 아픈 오거스타를 늘 보듬어 주고 챙겨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언니 줄리아였다. 여덟 살에는 지구본을 뒤흔들면서 언젠가는 꼭 찾아가고 싶은 넓은 세상을 꿈꾸다가 ‘브룬디’라는 단어의 발음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정한 엉뚱한 아이 오거스타는 좁고 답답한 동네를 최대한 빨리 벗어날 방법을 찾고 말리라 다짐했다. 참 많이 다르지만 푸근하게 엄마처럼 받아주는 언니 덕분에 나름 주변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던 두 자매의 끈끈한 관계는 새로운 인물이 끼어들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줄리아의 남자친구, 디에고였다.

한편 오거스타가 큰 의미 없이 좋아하는 나라로 점 찍은 브룬디에서 태어난 파페이트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지낼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견딘다.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빚어진 갈등은 서로를 죽이고 그 가족까지 처참하게 해치우는 잔인한 무력 싸움으로 번져 온 나라를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파페이트의 꿈은 단 하나, 매일 자신과 가족들의 생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곳,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는 법 때문에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압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다. 결국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겨우 버텨온 힘을 다 잃어버린 파페이트는 이 지긋지긋한 조국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스페인으로 가서 오래 전부터 꿈꾸던 목사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은 파페이트는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남동생 시온과 함께 여행을 준비한다. 우선 모로코 북쪽, 큰 항구가 있는 탕헤르까지 무작정 걸어가서 배를 구해 바다를 건넌다는 계획을 세운 두 사람의 목숨을 건 모험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진다. 르완다에서 콩고로, 다시 차드를 거쳐 나이지리아, 알제리를 거쳐 모로코의 항구까지 가야하는 엄청난 대장정이지만 부모님처럼 힘없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남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 때는 1999년 12월, 다가오는 새천년에 새로운 땅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말겠다는 두 형제의 간곡한 희망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4년, 매년 여름 떠나는 휴가지로 스페인을 택한 오거스타의 가족에게는 그 새로운 땅으로 가는 목적도, 과정도 너무나 달랐다. 따가운 햇살 아래 바다에서,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즐기던 어느 날, 오거스타는 엄마와 줄리아 언니만 두고 아빠와 둘이 산책을 다녀온 후 뭔가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한다. 한참 지난 뒤에야 밝혀진 그 변화란, 바로 줄리아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언니가 아직 만나지도 않은 어떤 아이, 아직 세포 수준밖에 안 되는 존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을 오거스타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은 서둘러 언니를 디에고와 결혼시키고, 두 사람은 새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지만 결국 언니가 고대하던 뱃속의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뱃속에서 다 자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엄청난 상실감에 줄리아는 점점 우울의 덫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랑이던 언니가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굴던 자신보다 엄마아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럴수록 자신을 향하는 부모님의 기대에 언니에게서 채우지 못한 욕심까지 더해지는 것을 느낄 때 오거스타는 진심으로 한탄한다. ‘원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이에게 줘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부모가 자식을 최대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식이 그 기대에 부응해줄 의무가 있나?’ 파페이트와 오거스타의 이야기를 짚막한 장으로 나눠 번갈아 들려주던 소설은 둘 다 이겨내기 힘든 비극을 겪은 두 사람이 스페인에서 만나면서 한 점으로 모인다. 90년대부터 총 20여년에 걸쳐 60년대 사고 방식에 철저히 갇힌 두 자매의 부모, 스탠리와 질의 이야기와 태어난 땅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난민들의 현실, 오거스타와 파페이트에게 다른 의미로 꿈의 땅이 된 스페인의 100년 된 집시 캐러반과 산뜻한 색깔로 물건마다 그려진 화려한 꽃 등 이국적인 풍경이 멋지게 묘사된다. 극도의 상실감과 비통함, 절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오거스타가 찾아가는 ‘반쪽’,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진정한 ‘집’,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인지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애나 글렌(Joanna Glen)은 런던 대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쳤다. 영국에 돌아와 스페인어,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교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바스 플래시 소설 선집(Bath Flash Fiction Anthology)’에 단편이 실렸다.

제목 : REST AND BE THANKFUL

가제 : 편히 쉬렴

저자 : Emma Glass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3월 19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재기 넘치는 언어,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담긴 소설” - 「옵저버」, 전작 『Peach』 2018년 최우수 소설 선정 사유

★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작가. 두려움 없는 태도로 문학의 힘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 - 조지 손더스(George Saunders), 전작 『Peach』에 대한 서평

출근하면 12시간 동안 밖으로 거의 나갈 일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곳, 모든 것이 희박하고 약하고 열은, 자그마한 존재들이 몸집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큰 장비들에 둘러싸여 있는 소아과 병동은 쉴 새 없이 들리는 기계음과 그 가녀린 생명을 고치기 위한 각종 ‘연장’들, 그리고 색의 명암이 다른 파란 작업복을 입은 간호사들로 가득하다. 가장 진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는 정해진 시각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지휘하고 로라는 하루의 절반을 통째로 보내야 하는 그곳에서 지휘에 따라 아이들을 살려내고, 힘없이 숨이 멎어버린 아이들과 작별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형체가 로라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환각인지, 정말 눈 앞에 나타났는지 가능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너무 희미하고 때로는 너무 선명해서 무서운 그 형체는 시도 때도 없이,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리지 않고 나타나 춤을 추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로라를 응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형체가 보일 때면 처음 듣는 낯선 음악도 귓가를 맴돌고 온 몸이 갑작스럽게 덮인 기묘한 감각에 떨리기 시작한다. 전체적인 분량도 짧은 편이고 각 장마다 감각적인 제목이 달린 짧은 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로라의 시선에서 출근하고, 12시간을 아이들, 부모들, 동료들, 병원 사람들과 씨름하고, 출퇴근하는 생활을 밀착해서 따라간다. 어느 간호사의 고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듯하지만 얼굴 없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로라의 눈 앞에 띄기 시작하면서 서스펜스는 점점 고조된다.

유령인지 무엇인지 모를 그 존재를 처음 목격한 건 깜깜한 밤에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피곤에 폭 절은 몸은 물에 빠졌다가 건져진 것처럼 무거웠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진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와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밤길이 더욱 캄캄하게 느껴질 때 쌀쌀한 바람 속을 걷다 문득 눈을 떴을 때 그림자처럼 바로 앞에 그것이 다가와 있었다. 온통 까만 원피스를 입은 작은 체구,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큼 다가선 로라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만 얼굴이 갑자기 움직이며 ‘일어나’라고 경고하는 소리를 듣는다. 소스라치게 놀란 로라는 손에 온 힘

을 실어 그 기괴한 존재를 향해 휘두르지만 이상하게도 로라가 힘껏 내리친 주먹은 로라 자신의 얼굴로 와서 부딪힌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눈 앞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로라의 환각은 빛이 환한 아침에도, 낮에도 끊이지 않는다. 밤에 본 이상한 형체 때문에 귀중한 수면 시간을 뒤흔들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다음 날 아침, 급기야 출근길 전철을 기다리다 철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또 다른 허연 얼굴을 발견한다. 새카맣고 큰 두 눈을 가진 그 섬뜩한 무언가가 이제 막 출발하려는 전철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기관사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채 로라는 있는 힘껏 멈추라고 소리친다. 정신 나갔냐는 기관사의 욕설 섞인 분노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하고서야 로라는 그 허연 얼굴을 한 무언가가 자신의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교대가 늦어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이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로라는 결국 교대 시각을 한참 넘겨 겨우 병원에 도착한다.

원칙대로라면 매일 새로 깨끗하게 뽀 유니폼을 입어야 하지만 반 시체 상태로 퇴근하다 세탁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전날 반나절을 입었던 옷을 다음 날 그대로 입고 일을 곧바로 시작하는 날도 허다하다. 전날 저녁 자신의 모습처럼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된 채 번들대고 입술은 껌질이 다 벗겨진 동료에게 환자 상태를 전달 받고, 로라는 하룻동안 돌봐야 할 연약한 작은 아기들을 하나하나 둘러본다. 대니도 그 위태로운 생명 중 하나였다. 조명을 환하게 켤 수 없어 어두운 중환자 병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자그마한 대니는 ‘말기환자’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에게 ‘말기’라는 카테고리라 붙여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로라는 점점 무너져가는 대니의 엄마 트레이시와 함께 죽음을 준비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병세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던 환자들의 엄마들, 아빠들도 녹초가 되어 잠깐 조는 새벽 시각에도 로라는 기계들 사이에 누워 있는 아기들을 주시한다. 고요한 병실에 기계 소리와 드레싱, 약, 아픈 사람의 몸에서만 나는 독특한 냄새가 뒤엉킨 묘한 공기를 들이킬 때 로라의 머릿속에 전날 밤 나타났던 알 수 없는 형체가 다시 겹치기 시작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소아 병동은 그 고요함 속에서도 끝없이 싸움이 이어진다. 가망이 없는 아이들 곁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싸움, 작은 실수가 여린 아이들의 희박한 숨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손짓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스스로와 벌이는 사투, 그리고 기계에 묶인 채 살기 위해 조용히 애쓰는 아기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된다. 새로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 간호사 훈련 중인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줘야 하는 것도 로라를 비롯한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이다. 소설은 로라의 하루하루, 매 시간을 가만히 함께 따라가며 다큐멘터리 같은 현실감과 판타지 같은 상상력으로 로라가 겪는 기묘한 일들을 들려준다. 한 간호사의 삶을 가장 내밀한 곳까지 보여주는 동시에 죽음이라는 작별을 무수히 견디고 극복해야만 하는 무게가 만들어내는 가슴 아픈 변화를 차분하게 그린, 독특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엠마 글래스(Emma Glass)는 아동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2018년에 발표한 데뷔 소설 『Peach』는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에 판매되고 국제 딜런 토머스 상 후보로 선정됐다.

NON-FICTION

제목 : THE GLOBALIST

가제 : 진정한 세계시민, 피터 서덜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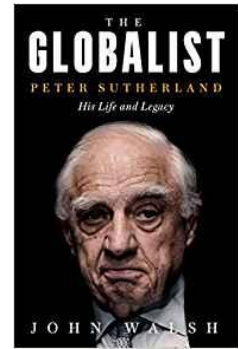
저자 : John Walsh

출판사: William Collins

발행일: 2019년 10월 17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전기



***"피터 서덜랜드는 철저히 정치인으로 살았던, 아일랜드인이자 헌신적인 유럽인, 자랑스러운 국제주의자. 평생 동안 그는 경제적 자유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정치인 레오 바라드카가 피터 서덜랜드에게 바친 헌사**

2016년 9월 어느 일요일, 일흔의 한 아일랜드 남자가 심장마비로 길에 쓰러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9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는 신분증도 갖고 있지 않았고 아무도 이 고통 받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바로 피터 서덜랜드(Peter Sutherland)이다. 피터 서덜랜드는 WTO의 첫 사무국장이었고 역사상 가장 젊은 유럽 위원회의 집행 위원과 골드만 삭스 인터내셔널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서덜랜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경제의 모습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계의 실력자였으며 인생의 마지막 시점까지도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들의 권리를 변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전 세계의 포퓰리즘 운동 주최자들이 그를 저격하기도 했다. 서덜랜드는 지난 해인 2018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피터 서덜랜드의 일생을 다룬 최초의 전기이다.

서덜랜드는 지난 25 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일랜드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최연소 법무장관이었고 최연소 유럽 의회 의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민정책을 다루는 유엔 특별 대사이자 바티칸의 특별 고문이기도 했다. 그가 남긴 주요 업적은 1994 년 4 월 15 일 마라케시에서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시킨 일이었다. 서덜랜드의 노련한 관리 능력 덕분에 무역 장벽을 무너트리고 시장 자유화의 포문을 연 그 역사적인 글로벌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덜랜드는 이 역사적인 순간 덕분에 '세계화의 아버지'라는 별칭과 함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BP (British Petroleum Company)와 골드만 삭스 인터내셔널의 회장이 되면서 서덜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일부에 합류했다. 그러나 서덜랜드의 진정한 소명은 여전히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가 가장 열망했던 자리도 유럽 위원회의 의장이었지만 국내 정치 부족주의와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그 기회는 포기해야만 했다. 서덜랜드는 영국의 중심부에서 일했지만, 영원히 외부인으로 남고자 했다. 그는 영원히 자랑스런 아일랜드 인이었다. 그의 영향력은 세계 대륙 곳곳을

항해 뺏어갔지만 그는 결코 길을 잃는 법이 없었다. 그는 한번도 자신의 뿌리에서 멀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자 존 월시는 전직 미국 재무부 장관 행크 폴슨, 미국 정치인 미키 칸토르, 프랑스의 정치 컨설턴트 파스칼 라미 등 정치 및 비즈니스계의 주요 인물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서덜랜드의 삶과 경력, EU 단일 시장 개발, WTO 설립 및 이주 정책등과 같은 그를 둘러싼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서덜랜드는 그의 마지막 생애 십 년 동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한 분야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가 꿈꾼 세계화는 부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 되버린 현재의 세계화가 아니었다. 그는 이민자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그는 각 정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서덜랜드는 이 문제의 원인의 뿌리를 뽑기 위해 자신의 돈을 직접 쏟아 부었다. 그가 성공한 재력가여서가 아니었다. 이는 그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었다. 그가 이론이 세계화의 형태는 5 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한 영웅을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저마다 자기 나라만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보겠다는 지도자들이 점점 더 큰 세력을 얻고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저자 존 월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피터 서덜랜드 같은 진정한 세계 시민들의 세상을 실현시키고자 꿈꿨던 한 남자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피터 서덜랜드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목차>

어린 시절

1. 곤자가(Gonzaga)와 몽스타운에서의 어린 시절
2. 더블린 대학에서 보낸 학생 시절
3. The Arms Trial (아일랜드 정치 스캔들)
4. 통일 아일랜드 당

관공서 시절

5. 수정헌법 제8조, 시한폭탄
6. 고난: 앵글로-아이리쉬 협상 동의안
7. 경쟁: 유럽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는 것
8. EU 경쟁 정책 구체화
9. 유럽위원회의 의장?
10. 우루과이 라운드 중개 및 WTO 설정
11. 세계화와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
(이하 생략, 총 2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존 월시 (John Walsh)는 더블린에서 주로 활동 중인 언론인이다. 더 타임즈 (The Times) 아일랜드판의 부편집장을 역임했다.

제목: YOU ARE WHAT YOU READ

가제: 그럼에도 뉴스를 읽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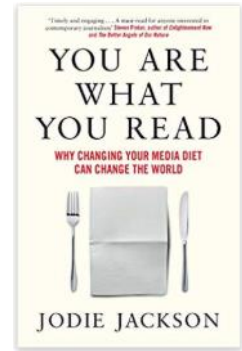
저자: Jodie Jackson

출판사: Unbound

발행일: 2019년 4월 4일

분량: 144 페이지

장르: 사회



★ “현재의 뉴스 환경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러나 대부분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부작용’을 상세히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길과 저널리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책” – 뉴욕타임스 기자, 데이빗 본스테인(David Bornstein)

★ “현대 저널리즘을 시기 적절하게, 매력적으로 탐구한 필독서” – 『Enlightenment Now』의 저자 스티븐 핑커

뉴스만 보면 속이 시끄럽다 못해 열불이 나서 아예 안 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가짜 뉴스’라는 말도 이제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 용어가 되었을 만큼 공정하게 사실만 다루어야 할 뉴스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된 사실,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전혀 없는 텅 빈 내용으로만 채워지는 일도 흔해졌다.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같은 한탄이 절로 나오고,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희망마저 다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안겨주니 신문이든 방송이든 뉴스는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갈 만하다. 그러나 저자는 세상이 헤드라인에서 심각하게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고 단언한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뉴스의 생산과 소비 환경이 지금과 같은 악순환을 만든 것일 뿐, ‘의도적으로’ 선택되어 보도되는 대부분의 뉴스를 전부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 책은 24시간 내내 쉼 없이 뉴스가 생산되는 새로운 환경이 이러한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고, 왜 부정적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가 훨씬 더 잘 팔리는지, 더불어 그러한 뉴스가 개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심리학, 사회학, 미디어학 분야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저자는 균형이 깨진 현재의 뉴스가 다시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건강에 해로운 가공식품과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다이어트로 몸이 망가지면 해독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요하듯이 잘못된 ‘미디어 식습관’을 소비자가 직접 바로잡아야 정신 건강을 지키고 세상의 정의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기자들은 사회의 각종 부패와 스캔들 보도에 열을 올리고 전쟁 범죄를 보도할까? 잘못된 일들을 꾸짖고 인권을 해친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목적 때문일까? 정치인들이 수시로 언급하는 것처럼 특정 언론은 특정한 사회적 의견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을까? 대다수가 혀를 내두르고 질린다고 느낄 만큼 부정적이고 불안과 걱정이 증폭되는 뉴스가 현재와 같이 계속 쏟아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저자는 어느 순간부터 마

음이 불편해서 뉴스를 안 보게 됐지만 ‘뉴스는 원래 그래’라고 이야기하며 보도되는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의문을 떠올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각도로 분석하고 탐구한 결과,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제품’을 보호하고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한다.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와서 공론화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고유한 기능이지만, 그 명분을 악용하고 가짜 뉴스를 당당히 보도하는 이상한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이 곧 부정적이고 불편한 뉴스는 다 거르고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긍정적이고 사회에 득이 되는 뉴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이 뒤틀린 뉴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반드시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중요한 정보를 보다 건강하게 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언이 담겨 있다.

<목차>

서문 / 저자의 말

머리말

핵심은 인식

오해하는 걸까, 오해하게 만든 걸까

나쁜 뉴스가 잘 팔린다

좋은 건 너무 많다

솔루션 저널리즘

속수무책 vs. 희망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균형

평상시처럼

변화의 힘

<저자 소개>

조디 잭슨(Jodie Jackson)은 이스트 런던 대학교에서 응용 긍정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스의 심리학적인 영향을 연구했다. 저술가, 연구자, 사회운동가로 활동 중이며 ‘The Constructive Journalism Project’의 파트너를 맡고 있다.

제목 : 222 WAYS TO TRICK YOURSELF TO SLEEP

가제 : 꿀잠 가이드 222

저자 : Kim Jones

출판사: Piatkus

발행일: 2019년 3월 14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건강



★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판매 완료

★ “과학과 연구로 뒷받침되는 유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가 담긴 책.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리사 아티스(Lisa Artis), 영국 수면 위원회

★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기발하고 과학적인 제안을 만날 수 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읽어보면 아주 놀라게 될 것.” - 「Top Santé」 매거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눈이 돌아갈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뒤쳐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이 잠이다. 밀린 업무, 코 앞에 닥친 시험, 다 끝내지 못한 집안일, 또는 해도해도 끝이 없는 의무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등 수많은 이유로 무수한 사람들이 잠을 뒤로 미룬다. 문제는 이렇게 걱정하고 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자려고 누웠을 때도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불면증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잠이 부족하면 기운도 없고 피곤해서 만사에 의욕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예민해진다. 제 2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고혈압, 비만, 우울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잠을 푹 잘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런 고민을 속 시원히 해소해줄 222가지 팁을 유형별로 소개한다. 잠 자리에 들기 전, 자려고 누웠을 때 지켜야 할 숙면 팁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숙면에 방해가 되는 무의식적인 습관을 알려준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처럼 많이 들어서 익숙한 팁들도 있지만 인생에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한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야외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등 언뜻 수면과는 무관해보이는 독특한 요령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수면과 숙면에 관한 과학계의 연구 결과를 광범위하게 종합한 결과라 더욱 흥미롭다.

심적인 이유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과 생각을 숙면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끄는 요령도 따로 제시된다. 저자는 흔히 알려진 양을 세거나 숫자를 세는 방법은 버리고 오늘 하루 동안 참 운이 좋았다고 할 만한 일이 없었는지 떠올려 볼 것을 권한다. 그런 기분 좋은 순간을 다섯 가지만 생각해보거나 종이에 천천히 써 보는 것과 더불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잡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차라리 입 밖으로 내서 말로 해보라는 조언도 제시된다. 특정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

할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각각 분리하고 걱정, 슬픔, 불안, 두려움 등 따로 분리한 후 하나하나 구름 모양으로 저 멀리 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구름이 동실동실 어딘가로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다. 이와 정반대로 몸을 숙면으로 열른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요령으로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이고 눈이 '위쪽'을 향하도록 고개를 조금 숙이는 것이 소개된다. 뇌파 중에서도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알파파를 자극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 방법과 더불어 누워서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 팔, 어깨까지 온 몸의 근육을 5초간 꼭 조였다가 푸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 심장이 너무 빨리 뛸 때 가라 앉히는 요령도 소개된다.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자신의 숙면에 가장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골라서 읽어도 무방하고, 읽으면서 바로바로 실천해볼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들로 꽉 채워진 책이다. 수면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 - 새라 브루어(Sarah Brewer) 박사 / 머리말

1. 눕기 전에 긴장을 푸는 방법
2. 마음 관리요령
3. 침실에서 유용한 팁
4. 먹고 마시는 음식에 관한 팁
5. 몸 관리요령
6. 호흡 관리요령
7. 낮 시간 관리요령
8. 잘 시간에 스트레스를 몰아내는 방법

결론

<저자 소개>

김 존스(Kim Jones)는 건강 정보를 주로 보도하는 프리랜서 기자다. 「데일리 미러」, 「선데이 익스프레스 매거진」 등 여러 잡지와 신문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GIVING UP WITHOUT GIVING UP

가제 : 포기 대신 내려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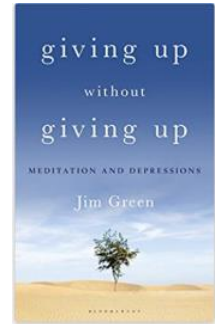
저자 : Jim Green

출판사: Bloomsbury Continuum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우울증이 냉혹하고 단정적인 진단에 그치지 않고 영적 깨우침의 계기이자 자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 책” - 『The Shattering of Loneliness』의 저자 에릭 바덴
- * “멋진 문장으로 삶의 존재론적 고통에 관한 일반적인 예상과 습관적인 태도, 조건화된 반응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며, 이중적 사고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 심리치료사, 교수 브라이언 손(Brian Thorne)

몸에 병이 드는 만성질환만큼, 혹은 그런 질병보다 현대인에게 더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울증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토록 외면하려는 우울증의 고통 속에 우리가 한 인간으로써, 주어진 한 번의 생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험과 교훈이 담겨 있다면?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번진 우울증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에 반기를 들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과 ‘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에 휩싸이는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명상’이라는 강력한 방법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 가능성과 기회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저자는 불교와 기독교에 오랜 전통으로 자리한 다양한 형태의 명상을 직접 두루 체험하고 큰 상실감과 혼란을 겪었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이 명상이라는 지혜로운 수단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준다. 20세기 중반에 ‘우울증이 발명됐다’는 흥미로운 전제를 바탕으로 저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에 과연 꼭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생애 어느 시점에 찾아올 수 있는 고통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큰 틀을 토대로 혼자만 세상에서 동떨어졌다는 생각에 외롭고 힘들 때 관심과 연민이라는 인간 본연의 특징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충분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울증이라 불리는 문제의 가장 큰 폐해는 어떻게 해도 진정이 안 되는 불안감, 초조함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끔찍한 확신과 결합되어 사방에 둘러쳐진 절망의 벽에 꼼짝없이 갇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명상은 이러한 의식 상태에 압도되지 않고 미처 보지 못한 탈출구를 차분하게 직접 찾아내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무작정 싸우는 대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배울 점을 찾도록 하는 놀라운 힘이 명상에서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삶을 망가뜨리고 왜곡시키는 우울한 생각들과 소음에 귀를 틀어 막고 도망치기보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내면 저 깊은 곳의 평정심과 고요함을 명상으로 다시 깨울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유하는 명상의 효과와 방법들이 모두 세계 곳곳에서 대부분 종교의 한 부분으로 신성하게 지켜진 전통이며 그 속에 담긴 지혜와 효과가 그만큼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 형성되거나 일그러진 생각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명상을 통해 찾아보는 것,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임을 오롯이 깨달음으로써 그 생각을 자연스레 버리고 봐야 할 것, 진실로 눈을 돌리는 명상의 힘을 활용한다면 어두컴컴한 우울증의 덫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우울증이란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할 무언가를 딱 필요한 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실컷 슬퍼한 후 다시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며 다시 돌아온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새로운 시각이 특히 인상적이다. 이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명상의 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목차>

어둠 속에서

환영합니다

시작하는 법 배우기

다시 시작하기 - 명상법

명상과 우울증 - 명상: 끝난 건 아무 것도 없다

각양각색의 명칭 - 명상: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실, 슬픔, 애도, 그리고 새의 날개: 명상: ‘매일, 하루의 한 순간’

자아도 지름길도 없다 - 명상: 나병 환자, 늑대와 함께

삶이 치료다! - 명상: 끝없는 놀라움

사막 속으로 - 명상: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생이 끝나기 전에

공동체

또 다른 시작 - 명상: 보통의 춤

맺음말

<저자 소개>

짐 그린(Jim Green)은 영국 국가 기관과 지역 기관, 오픈 유니버시티, BBC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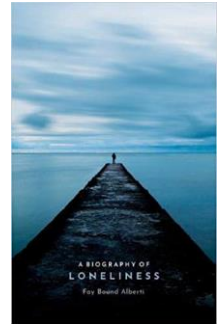
제목 : A BIOGRAPHY OF LONELINESS: THE HISTORY OF AN EMOTION
가제 : 외로움에 대하여: 감정의 역사
저자 : Fay Bound Alberti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9년 9월 7일

분량 : 320페이지

장르 : 인문



*** 이 책은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 속에서도, 소셜미디어에서 온갖 말들이 떠도는 중에서도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 사람을 위한 책이다. -로올라 유니버시티 시카고 대학, 바바라 H.로젠 와인 교수**

외로움.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는 참 가볍지 않은가? 우리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그저 스쳐가는 감정, 남에게 선뜻 말하기에는 왠지 망설이게 되는 그런 감정으로 여겨왔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외로움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외로움의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해왔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아무 곳이나 손쉽게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뭉뚱그려 사용한다. 행복의 부재, 단절감, 소외감, 우울감 등등과 함께 말이다. 외로움은 그냥 느껴지는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감정적, 상징적, 감각적, 행동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쩌다가 이렇게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진 흔한 현상이 되었을까? 저자 페이 바운드 알베르티는 문화 역사가로서 감정에 지배 받는 신체를 연구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확실하지 않은 이 감정적 상태가 문화적 패닉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궁금했다고한다. 알베르티는 어떻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신체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경험인 외로움 어떻게 형성되는 지, 동시에 외로움이 젠더, 민족성, 연령, 환경, 종교, 과학, 심지어 경제학을 포함한 거시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외로움이 보편적 현상이며,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라고 가정해보자. 사회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박탈이 만연해 있든 간에, 사실상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 문제의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 이런 점에서 외로움은 정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외로움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 저자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 책은 순전히 역사적 관심으로만 외로움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저자 스스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란 저자 개인의 삶의 단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때 느꼈던 외로움의 특정 모습이 있었고 작가, 엄마, 아내, 이혼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찾아온 외로움이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외로움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외로움은 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신하는 괴

물이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은 나이가 들면 습관적인 감정으로 변한다. 특히 외로움은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신체적 질병 혹은 중독이나 학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외로움이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시적인 외로움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기회를 준다. 일시적인 외로움은 인간의 창의성을 북돋고 감정적, 정신적으로 명료한 상태에 이르도록 돕는다.

‘감정 역사가’라고도 할 수 있는 저자 알베르티는 이 책에서 18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편지, 일기, 철학서, 정치 담론, 의학서등을 연구하면서 외로움이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문제임을 밝힌다. 저자는 또한 이 책에서 실비아 플라스, 빅토리아 여왕,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실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현대적이며 이미 체화된 감정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 모두가 시공을 초월해 서로 연결 되어있는 것 같은 시대에서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다.

서문: 현대의 유행병, 외로움

1. ‘홀로 있음(oneliness)’이 외로움(loneliness)이 될 때: 현대적 감정의 탄생

2: 선천적 외로움? 실비아 플라스의 만성적 외로움

3: 외로움과 결핍: 낭만적인 사랑, 폭풍의 언덕부터 트와일라잇까지

4: 배우자를 떠나 보낸 마음과 상실감: from Thomas Turner to the Widow of Windsor

5: Instaglum?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생

6: 시한폭탄?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7: 지붕도 없고 뿌리도 없다: ‘집’이라고 부를만한 곳이 없다.

8: 허기 달래기. 물질성과 무시당한 외로운 몸

9: 외로운 구름들과 텅 빈 배. 외로움이 선물이 될 때

결론: 신자유주의 시대 속 외로움 다시 보기

더 알아보기

<저자 소개>

페이 바운드 알베르티 (Fay Bound Alberti)는 영국의 젠더, 감정, 의학을 연구하는 문화역사가이다. 요크 대학 역사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테드(TED) 강연의 연설가이기도 하다. 다양한 학술 저널지와 매체에 다양한 주제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제목 : THE RE-OPENING OF THE WESTERN MIND

가제 : 서양 사상의 역사

저자 : Charles Freeman

발행일: 2020년 1월

분량 : 640 페이지

장르 : 역사



***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서기 500년부터 1700년까지 유럽 대륙 전체에서 다시 형성된 ‘서구 사상’의 역사를 종교, 역사, 철학, 문화적 관점에서 총 정리한 역사서**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관심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로마 특유의 통치 방식과 ‘문명화’도 함께 사라진 후 유럽 대륙 전체는 너무나 오랫동안 잃어버린 고유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서양 문명의 깊은 뿌리가 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귀중한 자료들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소실된 상황에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겨우 살아남은 소수의 고대 자료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한줄기 환한 빛이 되었고, 서구 사상의 재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기원전 4세기에 활동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등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비롯해 이후 회의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과 등으로 나뉘었던 철학자들의 사상, 대 플리니우스가 완성한 ‘자연사’,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만든 법전 등이 서구 지식의 부활에 촉매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관찰,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이 겨우 복원되고 보존된 고대 자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났다. 당시에는 정확한 정의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범위도 불분명했던 ‘과학’이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담긴 오랜 사상의 굳건한 자리를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저 옛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으려는 이 새로운 바람은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정치적, 과학적 혁명과 맞닿아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500년부터 1700년까지 유럽에서 서구 사상이 새롭게 고유한 형태를 구축한 방대한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간다. 잃어버린 유물을 되찾아야 한다는 열정부터 계몽주의가 태동한 시기까지 중세, 근대 초기를 아우르는 1200 여년의 역사를 정치, 사상, 신학, 문학까지 다각도에서 분석한 역사에는 전통적인 유럽 중심적인 역사 서술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즉 서구 사회가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갔음을 강조하는 방식이나 역사의 모든 측면에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랍, 인도, 중국 등 이미 확고한 문명이 구축된 지역을 철저히 탐구하고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다양한 근거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힌다. 동시에 인쇄 기술의 발명과 신세계의 발견, 종교개혁 등 중추적인 업적도 빠짐없이 전한다. 좀 더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목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핵심 사람들과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가령 프레스코화를 처음 선보인 이탈리아의 화가 조토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도 전에 없던 것을 처음 도입

하는 것과, 예술적인 가치는 분리될 수 있다는 점도 엄격히 강조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세 시대부터 대학 커리큘럼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고대 텍스트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던 15세기, 16세기 인문학자들의 첫 시도를 소개하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발표되지 못한 해부학 연구의 결실이 만들어낸 과학계와 의학계의 변화도 살펴본다. 더불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데카르트, 스피노자 등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이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마침내 부수기 시작한 흥미로운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방대한 범위만큼 복잡할 수 있는 역사지만, 이 시기에 재구축된 서구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도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충분히 그 연결고리를 느끼면서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다.

<목차>

서문/ 머리말. 배움의 붕괴

1장. 텍스트를 구해내다, 500-750

2장. 샤를마뉴가 되살린 배움의 원칙

3장. 첫 천년의 말, 기독교 사회의 형성과 다양화

4장. 중세 교회의 기독교 리더십과 권한, 불화로 탄생한 해결 과제, 1000-1250

5장. 아벨라르와 사유의 전쟁

6장. ‘리베르타스’의 눈물, 도시국가의 재탄생

7장. ‘전례 없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운명이 따른, 완전히 새로운 것’ 중세 대학의 성공과 실패

8장. 중세 철학의 복합적인 특성 - 새로운 문인가, 막다른 길인가?

9장. 희미한 빛을 던진 과학의 부흥, 1200-1350?

10장. 문학과 정치적 사고의 새로운 방향: 단테, 마르실리우스, 보카치오의 글

(이하 생략, 총 3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역사가다. 캠브리지 대학교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대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에서 문화사 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Closing of the Western Mind』 등이 있다.

제목 : NAVIGATING THE IMPOSSIBLE

가제 : 불가능 속에서 길을 찾는 법

저자 : Jason Caldwell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분량 : 16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의욕을 잃지 않고 최상의 성과를 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엄청나게 힘든 신체적, 정신적, 지적 역량을 두루 갖춘 저자의 이야기가 큰 영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 인디애나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존 F. 케이디(John F. Cady)
- * “저자는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깨울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 그의 재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 프리맨틀미디어 아시아 태평양 지부 전 CEO, 이언 호그(Ian Hogg)

“인생은 너무 짧아.”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수시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깊게 배인 그 말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 배우고 싶은 것,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떠올라도 당장 처리해야 할 일과 피곤한 일상을 떠올리며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를 기다리고 어쩌다 사이가 멀어진 친구, 가족들이 문득 생각나서 풀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좋은 타이밍이나 계기가 생기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생각만 할 뿐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어쩔 수 없는’ 이유 혹은 핑계를 수도 없이 떠올리면서 미루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그걸 아쉬워하고 후회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그러다 실패하면 교훈을 남긴 후 다시 도전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2016년에 무려 4,80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인간의 힘으로 노를 저어 이동하는 대서양 횡단 경기에 출전하여 35일 14시간 3분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차지한 놀라운 경력의 소유자인 저자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일들에 계속 도전하며 살았다. 누구도 전체를 이동해본 적이 없는 거대한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 극한의 경기에서 부지런히 출전한 것으로 모자라 10 건이 넘는 세계신기록을 보유할 만큼 뛰어난 기량까지 발휘해온 저자는 인생에 아무런 불만도 없고, 극복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있거나 남들보다 승부욕이 유난히 불타오르는 것도 아닌 자신이 쉼 없이 모험을 떠나는 이유는 늘 다음을 기약하며 변화 없는, 평온한 일상에 스스로 발목을 묶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대체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루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불굴의 도전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전하고 가르쳐온 저자는 이 책에서 굳이 대자연으로 달려나가 몸과 마음을 극한의 경지까지 내몰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그저 안주하는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한 도전

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함께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도전할 때 인생을 더욱 풍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가 거듭될 때 어떤 방법으로 돌파해야 하는지 저자가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대학교에서 그 동안 가르쳐온 핵심 내용이 모두 소개된다. 현실에 머물지 않는 리더는 팀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설명과 함께, 저자는 최종 결과만으로는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머리보다 감정이 우선이 되는 리더십이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와 이를 활용하는 법, 최상의 기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팀원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팀 혹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조목조목 집어준다.

세계적인 스포츠맨이자 리더십 전문가가 놀라운 경험으로 깨달은 팀워크, 특별한 성과, 탄탄한 회복력의 비결을 상세히 밝힌 유익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우승자처럼 그만두는 법

감정의 주도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할 수 있다

핵심 찾기

네 가지 의문

의욕을 넘어

유대감의 가치

아침밥을 먹어라

상승효과를 더욱더 키워라

80 마일을 달리던 날들

맺음말.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저자 소개>

제이슨 칼드웰(Jason Caldwell)은 리더십 훈련 업체 'Latitude 35'의 창립자로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세계 기록을 보유한 달리기 선수이기도 하다.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 등 여러 교육기관에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